

舞踊が躍る五十年の風情 物想と夢の祭典

舞踊組曲 《歲月》

무용조곡

세월과 더불어

《歲月》の「嵐」の舞を「大ルチマの舞」をはじめ
 《嵐》の作品と並に併に作り上げた8作品、全16作品を織り成す。

高麗麗王正統朝、舞臺から
 玄室の壁に飾られた舞踊人
 A dancing figure, mural on the right wall, main chamber, detail.

大阪公演

2000年12月24日(日)
 開演: PM 1:30 / PM 5:00
 大阪国際交流センター大ホール
 入場料: S 4,800円 A 3,500円

ゲスト出演: 鄭珉
 賛助出演

大阪朝鮮高級学校舞踊部
 京都朝鮮中高級学校中級部舞踊部
 滋賀朝鮮初中級学校舞踊部
 尼崎朝鮮初中級学校舞踊部
 神戸朝鮮初中級学校舞踊部
 西播朝鮮初中級学校舞踊部

名古屋公演

2001年2月4日(日)
 開演: PM 4:30
 愛知県勤労会館
 入場料: 指定席 4,500円
 自由席 3,500円

ゲスト出演: 金順子
 賛助出演

愛知朝鮮中高級学校舞踊部

東京公演

2001年3月20日(火)
 開演: PM 1:30 / PM 6:00
 北とぴあ(さくらホール)
 入場料: SS 7,000円 S 4,000円
 A 3,500円 自由席 2,500円

ゲスト出演: 鄭明子
 賛助出演

朝鮮大学校舞踊部
 東京朝鮮中高級学校舞踊部
 西東京朝鮮第一初中級学校舞踊部
 西東京朝鮮第二初中級学校舞踊部
 神奈川朝鮮初中高級学校中級部舞踊部
 川崎朝鮮初中級学校舞踊部

出演: 在日本朝鮮文学芸術家同盟 各支部舞踊部 (東京、神奈川、西東京、東海、京都、大阪、兵庫、広島、山口、福岡)
 主催: 舞踊組曲《歲月》公演実行委員会 お問い合わせ: 近畿 06-6323-1564、中部 052-551-9638、関東 03-3817-0431

舞 朝鮮무용통신

発行: 在日本朝鮮文学芸術家同盟中央本部 〒112-8603 東京都文京区白山4-33-14 TEL03-3817-0431
 제 5 호 (루게 제 5 호) 주제89 (2000)년 8월 10일 (목)

무용조곡 《세월과 더불어》
 작품창작이 조국에서 진행되었다!

지난 5월 10일 각 무용부장들과 맹원들로 무어진 무용조곡 《세월과 더불어》 작품창작단 8명은 약 20일 동안의 창작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5월 30일 일본에 돌아왔다. 무용안무가 김해춘선생님, 백환영선생님, 엄영춘선생님, 백은수선생님, 김영길선생님, 그리고 박무준선생님을 비롯한 5명의 작곡가선생님, 황룡수선생님을 비롯한 3명의 무대미술가, 2명의 의상담당자와 2명의 무용지도원들이 이번 일본공연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우리를 도와주셨다. 이간에 새 작품 8연목을 창작하고 기성 작품 4연목을 지도받았다.



무용조곡 《세월과 더불어》 공연 합동연습 예정

◆강까지방(3현)	제1차 합동연습	2000년 10월 29일 (일)
	제2차 합동연습	2000년 12월 3일 (일)
◆도끼까지방	제1차 합동연습	2000년 9월 8, 9, 10일
	제2차 합동연습	2000년 12월 8, 9, 10일
	제3차 합동연습	2001년 1월 19, 20, 21일
◆간또까지방(3현)	제1차 합동연습	2000년 11월 19일
	제2차 합동연습	2001년 1월 28일

전국 무용부장회의가 진행된다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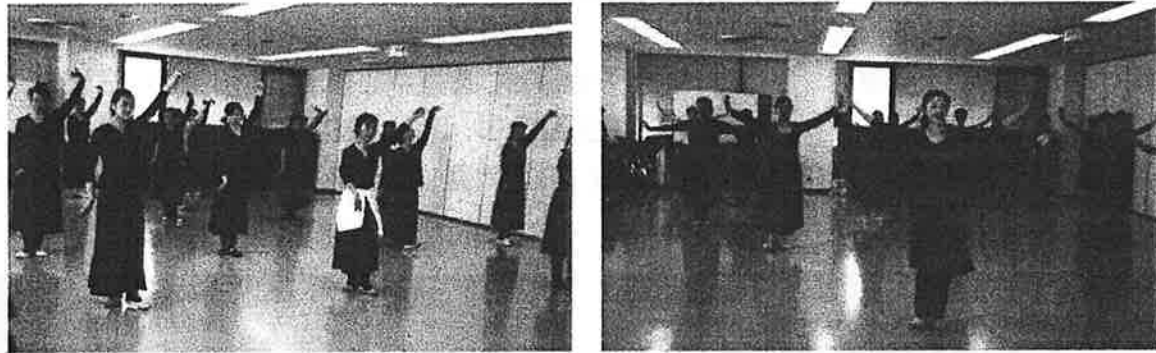
시일: 2000년 11월 1일 수요일 오후 1시

장소: 총련 오사까본부

무용조곡 《세월과 더불어》

작품연습이 각 지부들에서 한창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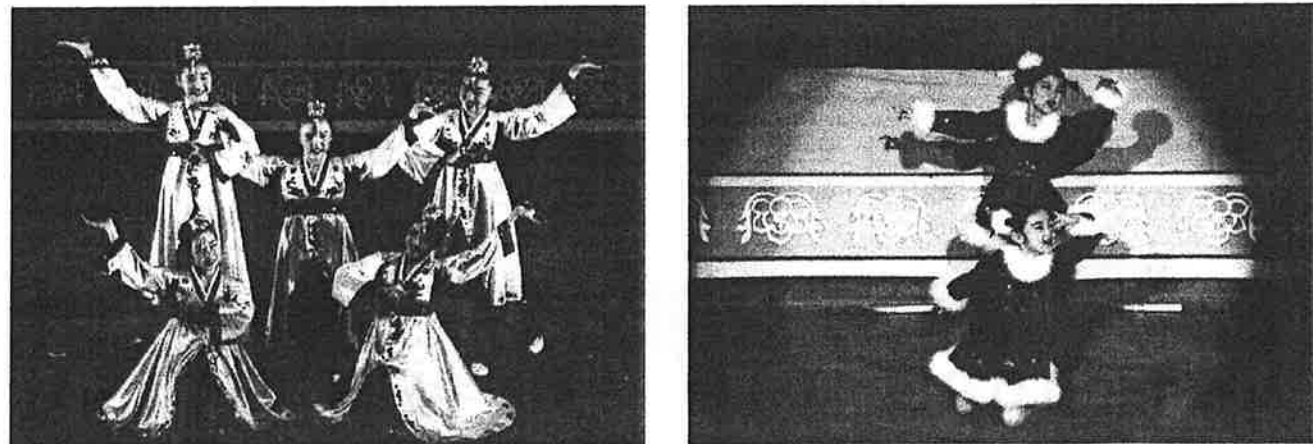
2000년 12월 24일 大阪国際交流센터에서 진행될 무용조곡 《세월과 더불어》 첫 공연을 지향하여 각 지부들에서 담당연목연습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. 문예동 니시도쿄지부에서는 4월 5일부터 《손북춤》연습을 시작하여 4월 30일에 문예동 중앙부위원들의 지도를 받았다. 문예동 도카이지부에서는 4월 13일에 제1차 부 위원회를 거쳐 공연출연자를 결정하고 연습을 시작하였으며 선전사업계획을 면밀히 짜고정확히 사업해 나가고 있다. 《강강수월래》를 담당하는 도쿄조교 무용부학생들은 7월 4일에 작품전습을 끝내고 연습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. (사진: 문예동도카이)



나카니시조선무용교실 제1차발표회

<21세기의 무희들> 이 진행되었다.

420명의 관람자들을 동원한 이곳 나카니시조선무용교실 제1차발표회는 이제까지 착실히 활동해 온 성과를 과시하였다. 특히 일본에서 나서자란 새 세대들의 계절에 따른 생활을 무용을 통해 보여 줌으로써 연구생 학부모와 관람자들에게 민족교육의 우월성과 무용교실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. 동 교실은 앞으로 수강내용을 더욱 연구하여 지역 무용활동을 활발히 벌려 갈 결의를 다지고 있다.



舞(MAI)조선무용연구소

제2차발표회가 진행되었다.

1996년 5월에 舞(MAI)조선무용연구소가 설립되어 4년이 지나는 오늘 生野교실,布施교실도 설립되어 무용과 70명, 장고과 5명의 연구생들과 5명의 강사들로 구성되게 되었다. 이 기간 연구소에서는 연구생들이 조선무용가로서 폭넓게 활약할수 있도록 연습을 진행하여 왔으며 작년에는 조국의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차리티공연에 출연하고 금년 4월 5일에는 850명의 관객과 80명의 출연자로 제2차무용발표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



제5차 문예동도쿄무용부발표회

민족무용의 밤

2000년9월8일(금) 7시개연

サンパール荒川 大ホール

全席自由席 2,000円

☎ 03-3945-7040

무용자료안내

<조선민속무용기본동작 1>

비데오테이프 ¥3,500-

음악테이프 ¥1,500-

<조선무용기초동작 1, 2단계>

비데오테이프 ¥3,500-

음악테이프 ¥1,500-

CD판 <조선무용아동곡집 15곡>

¥2,500-